공정하다는 착각 논제

* **자유논제 -**

|  |
| --- |
|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289p)* |

1.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능에 따라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대한 부당하지 않도록 재능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외과의사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되었는지,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인지는 결과만 봐서는 노력과 재능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력과 재능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  |
| --- |
| *... 마찬가지로 외과의사에게 잡역부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까닭이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가 작동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해도, 그런 보수 격차가 외과의사의 특출난 재능과 기여를 가리게 되는 부수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231p)* |

**선택논제**

1. 본문 중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  |
| --- |
| *그러나 불평등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다른 출발점에서의 유리함(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아마도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 덕을 보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188p)* |

1. 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은 통틀어 보았을 때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가?

|  |
| --- |
| *그러나 미국 노동 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이 아니다. 다수가 삶 그 자체를 포기한다. 최악의 비극적 지표는 '절망 끝의 죽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이런 죽음은 특히 중년 백인 남성 사이에서 많았다. 45세에서 54세 사이의 백인 남성과 여성에게 절망 끝의 죽음은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세 배로 늘었다.(310-311p)* |